

글로벌 제주를 위한

#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2



#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5.15~2025.05.21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	6
	▪ 중국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 버전, 협상 최종 타결 .....	6
	- 중국 8개 부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위한 공동 조치 발표 .....	6
	- 중국 최초 해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 가동 .....	7
	- 광저우 세관, 항공 통관 편의성 증진 위한 20개 세부 조치 발표 .....	7
	- 베이징시, 에너지 기술 혁신과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화 .....	8
	- 한중 의료기업, 산둥성에서 만나 보건 산업 협력 기회 모색 .....	8
	- 2025 산업인터넷대회, 쑤저우서 개최...디지털 혁신 논의 .....	9
	- 중국 시장감독총국,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가이드라인 발표 .....	10
	- 보고서 "RCEP,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 .....	10
	- 중국, 2024년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규모 세계 1위 달성 .....	11
	▪ 일본	
	- 일본우편, 주소 전체를 대체하는 '디지털 주소' 서비스 도입 .....	11
	- 일본 지방은행,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보안 강화 비상 .....	12

- 도쿄 23구, 투기보다 '삶의 질'...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 요구 강화 ..... 13
- 교토대학 스타트업, 인도네시아에서 인공지능 활용 어장 안내 서비스 개시 ..... 13
- 시즈오카현, 업무 디지털화 추진으로 경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 ..... 14
- 송아지 원격 관리 시스템, 일본 축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사로 부상 ..... 14
- 일본 동북 지역 잉여 재생에너지, 수도권 공급 위한 송전망 확충 본격화 ..... 15
- 도치기현,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 위해 인재 육성 및 기술 개발 거점 구축 ..... 16
- 니가타현 지자체, 하수 슬러지 비료 생산 확대, 보급 및 인식 개선 과제 ..... 16
- 노토반도, '페이지 프리' 개념 도입으로 평시에도 재난 대비 ..... 17
- 홋카이도, 관광객 증가에 맞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 교통 도입 박차 ..... 17

■ 베트남

- 베트남, 트럼프 그룹과 호찌민시에 신규 타워 건설 추진 ..... 18

■ 미얀마

- 미얀마, 3,577만 달러 규모 신규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승인 ..... 18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라오스 및 필리핀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임박 ..... 19
-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마약 단속 위한 협력 강화 합의 ..... 1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25년 1분기 4.4% 경제성장률 기록, 수출 둔화 영향 ..... 20
- 말레이시아, 2025년 1분기 12만 7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 ..... 20

- **아세안**

- 아세안-중국, 디지털·녹색 경제 포괄하는 FTA 3.0 협상 타결 ..... 21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로렌스 워그 총리 주도 신규 내각 구성... 세대교체 단행 ..... 21

- 싱가포르, 미국 관세 부과 유예 기간 활용해 수출 확대 총력 ..... 22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중국

- ✓ 중국과 아세안이 2년간의 협상 끝에 디지털 및 녹색 경제, 공급망 연결성 등 미래 유망 산업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 3.0'을 최종 타결했으며, 연내 정식 서명을 통해 한층 더 심화된 역내 경제 통합 추진
- ✓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8개 부처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고질적인 융자난 해소를 위해, 첫 대출 확대와 불법 중개 근절 등 금융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23개 항목의 포용적 지원책 공동 발표
- ✓ 중국해양석유가 중국 최초의 해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유전 개발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하 유층에 주입하여 원유 회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영구 저장하는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를 이룸
- ✓ 중국 광저우 세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물동량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검사가 불필요한 화물의 24시간 자동 통과 및 고신기술 제품 우선 심사 등을 포함하는 20개 세부 조치를 발표하며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함
- ✓ 중국 베이징시가 낮은 에너지 소비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에너지 절약, 수소 에너지 저장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녹색 경제 도시'로의 깊이 있는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
- ✓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 기업들이 중국 산둥성에서 제8회 교류회를 열고, 양국이 가진 강점인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협력 기회와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

- ✓ 중국의 공업도시 쑤저우에서 '2025 산업인터넷대회'가 개최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깊이 융합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능제조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집중 논의
- ✓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수수료 금지 등 불합리한 행위를 명시하고 입점 상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수료 행위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
- ✓ 20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보고서 발표, RCEP 발효 3년 만에 라오스,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역내 중간재 무역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부상
- ✓ 중국이 2024년 연간 3,650만 톤의 수소를 생산 및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화석연료 기반 수소가 다수임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능력에서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

## ○ 일본

- ✓ 일본우편이 기존 우편번호가 식별 못 하는 건물명, 호실까지 포함한 7자리 고유 코드로 주소를 대체하는 '디지털 주소' 서비스를 도입, 온라인 주소 입력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배송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을 동시에 높임
- ✓ 일본 금융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은행들의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직접 모의 해킹 테스트를 실시하고 취약점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시행
- ✓ 도쿄 23구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투기 수요 속에서 실거주자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신축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 사업자에게 육아 지원 시설이나 배리어프리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

- ✓ 교토대학 스타트업 '오션아이즈'가 인공지능으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인도네시아 어민들에게 최적의 어장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 정보 기술이 부족한 현지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 ✓ 일본 시즈오카현이 재정난과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비효율적인 자체 개발 시스템을 상용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데이터 분석 도구를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과 경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
- ✓ 일본의 한 사료 회사가 개발한 송아지 원격 관리 시스템이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송아지 목의 태그가 24시간 활동량을 측정하여 질병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폐사율을 낮추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 ✓ 일본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북 지역의 잉여 전력을 전력난을 겪는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3,539억 엔을 투입하여 두 지역을 잇는 대규모 송전망 연계선 증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 ✓ 일본 도치기현이 농가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인재 육성 센터와 기술 연구 거점을 설립하고 통신 기지국을 확충하는 등 기술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 조성에 착수
- ✓ 일본 니가타현 지자체들이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해 만든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화학 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나, '하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음
- ✓ 노토반도 대지진 이후 이시카와현이 재난 대비 패러다임을 전환, 평상시 사용하는 공공시설과 정보 시스템이 재난 시에도 중단 없이 대피 및 구호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페이지 프리'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

- ✓ 일본 홋카이도가 인구 감소로 인한 교통망 축소 문제와 증가하는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및 자율주행 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실험을 적극적으로 추진

## ○ 베트남

- ✓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그룹과 호찌민시에 신규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리조트 및 골프장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며 양측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

## ○ 미얀마

- ✓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의류, 철강 등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총 3,577만 달러 규모의 신규 외국인 및 국내 투자 프로젝트 9건을 승인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가 라오스 및 필리핀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투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
- ✓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이 국경 지대에서 급증하는 마약 밀매 및 관련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 검사, 정보 공유, 예방 교육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담은 실질적인 합동 단속 강화 방안에 공식 합의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견고한 민간소비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아 4.4% 성장에 그치며, 정부가 연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
- ✓ 말레이시아 노동 시장이 2025년 1분기에 1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전년 대비 1.4%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며 국가 경제의 긍정적인 활력 반영

## ○ 아세안

- ✓ 아세안과 중국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발전시켜,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녹색 경제 분야의 협력까지 포괄하는 '3.0 버전'으로 격상하는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미래 경제 공동체 구축을 예고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로렌스 워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내각 개편을 통해 7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고 신진 인사를 대거 발탁,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 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점진적인 리더십 세대교체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 ✓ 싱가포르 기업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의 유예 기간을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무역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b>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3.0 버전, 협상 최종 타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아세안이 온라인 경제무역장관 특별회의를 통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3.0 버전' 협상의 전면적인 완성을 공동으로 선언함. 2022년 11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약 2년간의 논의 끝에 마무리되었으며, 최종 의정서 서명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의 진입</li> <li>- 중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이번 3.0 버전 구축은 양측의 경제 협력 우선순위 중 하나임. 이는 공동으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되며, 포용적이고 현대적인 상호 이익의 협정을 지향</li> <li>- 협정에는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결 등 9개 분야의 신규 장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경제 통합을 추진함. 이는 양측의 생산 및 공급망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며,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li> </ul> <p>○ <b>중국 8개 부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위한 공동 조치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8개 부처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용자 환경개선을 위한 23개 항목의 지원 조치를 공동으로 발표. 이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실현하고 실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li> <li>- 이번 조치는 금융 공급 확대, 종합 용자 비용 절감, 용자 효율성 제고, 지원의 정확성 향상 등 8개 방면을 중심으로 구성됨. 특히 첫 대출, 신용 대출, 중장기 대출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여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li> <li>- 또한, 온라인 대출의 안정적인 발전과 신용 심사 모델 개선을 통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정밀·특색·혁신' 중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기업 등 중점 영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함. 각 부처는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독려하며 실질적인 효과 창출에 주력</p>
	<p>○ <b>중국 최초 해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 가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해양석유가 주강구 분지에 위치한 엔핑 15-1 플랫폼에서 중국 최초의 해상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함. 이 프로젝트는 유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정제 후 지하 유층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li> <li>- 엔핑 15-1 유전은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은 특성을 지님. 기존 방식으로는 채굴 시 이산화탄소가 함께 배출되어 해상 시설 부식과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나, CCUS 기술 적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 초기에는 시간당 8톤의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원유 증산과 탄소 저장을 동시에 달성</li> <li>- 이 프로젝트는 화석 에너지의 저탄소 고효율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 향후 10년간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계획임. 이를 통해 약 20만 톤의 원유 증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li> </ul>
	<p>○ <b>광저우 세관, 항공 통관 편의성 증진 위한 20개 세부 조치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광저우 세관이 광저우 바이윈 공항의 통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20개 세부 조치를 발표하며 국제 항공 허브 및 국가 임공 경제시범구 건설 가속화에 나섬. 올해 들어 해당 공항의 항공편 및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각각 19%, 22%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임</li> <li>- 이번 조치는 수출입 화물 통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둬. 세관 검사가 필요 없는 화물에 대해 24시간 전자 통관 및 자동 통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신선식품 등 특수 화물은 '수시 검사' 체계를 운영.</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또한, 고신기술 제품과 민생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교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환승 수하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항공사가 승객을 대신해 수하물 개봉 검사에 협조하는 '전권 위탁' 제도를 지원. 이러한 조치들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항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li> </ul>
	<p>○ 베이징시, 에너지 기술 혁신과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세계가스총회에서 에너지 기술 혁신과 녹색 저탄소 전환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에너지 절약,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관련 산업의 혁신 발전을 강화하여 에너지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계획</li> <li>- 베이징은 전국 과학기술혁신센터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난 몇 년간 낮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로 높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옴. 특히 석탄 소비 비중을 1% 미만으로 줄이고, 녹색 전력 사용 비율을 29.3%까지 끌어올리는 등 뚜렷한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달성</li> <li>- 향후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방침. 데이터 센터 및 가상발전소와 같은 신규 산업을 육성하고,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li> </ul>
	<p>○ 한중 의료기업, 산둥성에서 만나 보건 산업 협력 기회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회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교류회가 산둥 제1의과대학에서 개최됨. 양국 의료 기업들은 로드쇼,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함. 특히 지난 교류회의</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성과를 구체화하고 더 많은 신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시 부시장은 지난시가 생물 의약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한국 유명 기업들이 지난 국제 의학센터에 입주했다고 밝힘.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경험을 배우고 지난시의 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함</li> <li>-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양국이 의료 건강 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해 협력 시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함. 이번 행사가 양국의 기술 및 제품 교류와 협력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li> </ul>
중국	<p>○ 2025 산업인터넷대회, 쑤저우서 개최…디지털 혁신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스마트 혁신 심화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화 추진'을 주제로 2025 산업인터넷대회가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림. 참가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산업인터넷이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함께 모색함</li> <li>-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인 쑤저우는 산업인터넷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관련 산업 부가가치는 1,465억 위안에 달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진행 중. 쑤저우는 '지능제조의 도시'를 목표로 산업인터넷의 역할을 강조</li> <li>-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산업인터넷 발전에 미칠 깊은 영향을 강조하며, 고품질 산업 데이터셋 구축과 산업 분야 전문 대규모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새로운 유형의 산업화를 이끌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호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 시장감독총국,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가이드라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수수료 행위 준수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에 대해 설명하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함. 이는 플랫폼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입점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li> <li>-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이 공정, 합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특히 중소 상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혜택 제공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입점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유도함</li> <li>- 또한, 중복 수수료 부과, 서비스 미제공, 비용 전가 등 8가지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플랫폼의 자체적인 준법 경영 체계 강화를 요구하며, 입점 상인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플랫폼과 상인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중국	<p>○ 보고서 “RCEP,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보고서'가 RCEP 발효 3년여 만에 역내 경제 통합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함. 협정은 무역, 투자, 산업망 및 가치 사슬 융합 등 여러 방면에서 뚜렷한 촉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li> <li>- 보고서에 따르면 RCEP 발효 이후 역내 상품 무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함.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대한 무역 촉진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들 국가의 2024년 역내 무역 규모는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함. 아세안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지로 부상</li> <li>- RCEP은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의 융합 또한 지속적으로 촉진함. 역내 중간재 무역 비중이 2021년 65%에서 2024년 68.3%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상승함. 보고서는 RCEP이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넘어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 시장 형성을 강조.</p> <p>○ 중국, 2024년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규모 세계 1위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중국 수소에너지 발전 보고서(2025)'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연간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규모는 3,650만 톤을 초과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함. 특히 재생 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능력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li> <li>- 2024년 말 기준, 중국의 수소 생산 능력은 5,000만 톤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주를 이룸.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 용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친환경 수소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li> <li>- 국가에너지국은 향후 '제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을 통해 수소 에너지 산업의 과학적 배치와 '생산-저장-운송-활용'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임. 이를 통해 수소 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을 명확히 함.</li> </ul>
일본	<p>○ 일본우편, 주소 전체를 대체하는 '디지털 주소' 서비스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우편이 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 '디지털 주소'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함. 이는 기존 우편번호가 포함하지 못하는 상세 주소(지번, 건물명, 호실)까지 모두 식별하여, 온라인 쇼핑 등에서 주소 입력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li> <li>-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됨. '유 아이디' 온라인 서비스에 등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한 이용자는 무료로 디지털 주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시에도 웹사이트 정보만 변경하면 모든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우편은 향후 디지털 주소만으로 우편물과 소포를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용 API를 무상 제공하여 외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라쿠텐 등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검토 중이며, 택시 호출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본 지방은행,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보안 강화 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금융청이 지방은행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중임. 2024년부터 모의 사이버 공격 테스트를 실시하고, 공격자에게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관련 보고서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함. 이는 지방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약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li> <li>- 금융청의 테스트 결과, 일부 지방은행에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초기 아이디 및 쉬운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취약점이 발견됨. 금융청은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함</li> <li>-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지방은행은 전문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실정임. 금융청은 양자컴퓨터를 악용한 미래의 공격에 대비해 차세대 암호 기술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은행 간의 협력 및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음</li> </ul> </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도쿄 23구, 투기보다 '삶의 질'...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 요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 23구의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신주쿠구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 육아 지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카노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세대를 배리어프리 사양으로 만들도록 요구하며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li> <li>- 최근 도쿄 23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 목적의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실제 거주자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여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 특히 자녀 양육 세대의 유출을 막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임</li> <li>- 신주쿠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구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검토 중이며, 주차 공간 확보 및 재해 대비 비축 창고 설치 등도 요구할 계획임. 이는 과거 주택 수 늘리기엔 치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요한 전환점</li> </ul> <p>○ 교토대학 스타트업, 인도네시아에서 인공지능 활용 어장 안내 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토대학에서 분사한 스타트업 '오션아이즈'가 인도네시아에서 어업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며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함. 이 서비스는 인공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어획 가능성이 높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함</li> <li>- 기상위성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해수 온도, 조류 등을 예측하고, 최대 14일 후의 바다 상황까지 파악 가능. 어부들은 연료와 시간을 절약하며 효율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됨. 서비스는 월 구독료 형태로 제공되며, 실제 어획 데이터를 통해 AI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기술 도입이 더딘 인도네시아 어업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li> </ul>
	<p>○ <b>시즈오카현, 업무 디지털화 추진으로 경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시즈오카현이 현청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스템 관련 경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함. 자체 개발하던 시스템을 기존 상용 제품으로 전환하고, 직원을 위한 정보 분석 도구를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2025년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조직의 의식 개혁을 중심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보 시스템 관련 경비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 현재 연간 76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고 패키지 상품으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 중임</li> <li>- 또한, 직원들에게는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 현청 업무의 약 60%를 디지털화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ul>
	<p>○ <b>송아지 원격 관리 시스템, 일본 축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사로 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사료 전문 기업 '카스카디아 트레이딩'이 개발한 송아지 원격 건강 관리 시스템 '옛모멘트'가 축산 농가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음. 송아지 목에 부착된 태그가 24시간 활동량을 측정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함</li> <li>- 이 시스템은 폐사율이 높은 송아지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축산 농가의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태그는 충전이나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자가발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방식으로 작동하며,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도입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7월에는 약 1만 마리의 송아지가 이 시스템의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는 컨디션 난조를 알려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일본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음</li> </ul>
	<p>○ <b>일본 동북 지역 잉여 재생에너지, 수도권 공급 위한 송전망 확충 본격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증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 도호쿠전력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동북과 도쿄를 잇는 연계선을 복선화하여 송전 용량을 현재보다 80% 늘리는 것을 목표</li> <li>- 총 3,539억 엔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27년 11월 완공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북 지역의 전력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력 유통을 원활하게 할 것임.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력 유통의 한계를 드러냈던 일본 전력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li> <li>- 더 나아가, 홋카이도·동북과 수도권을 잇는 '일본해 루트' 해저 송전망 계획도 추진 중임. 이는 총사업비 1조 8천억 엔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송전망 사업으로, 일본의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일본</b>	<p>○ 도치기현,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 위해 인재 육성 및 기술 개발 거점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치기현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에 나섬. 스마트 농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추진 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거점을 마련하여 고품질·고수익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2025년도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사업에 1억 3천만 엔의 예산을 투입함. 인재 육성 센터에서는 스타트업 기술자와 선도 농가를 지도자로 활용하고, 개발 거점에서는 스마트 농업에 적합한 신제품 연구 등을 진행하여 젊은 층의 농업 분야 진입을 유도할 계획</li> <li>- 현재 도치기현 내 스마트 농기기 도입 농가는 1,600곳을 넘어섰으나, 높은 초기 비용과 통신 환경 미비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 현은 위치정보 오차를 줄이는 기지국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여 스마트 농업 보급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갈 방침</li> </ul> <p>○ 니가타현 지자체, 하수 슬러지 비료 생산 확대, 보급 및 인식 개선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니가타현의 여러 지자체에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활용한 비료 생산이 확대되고 있음. 폐기물 재활용과 비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하수에서 만들었다'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적 보급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li> <li>- 니가타현은 하수 슬러지 비료에 '에코노와 니가타'라는 이름을 붙이고 무료 배포 행사를 여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질소와 인산 함량이 높아 채소나 화훼 재배에 효과적이며,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어 일부 농가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li> <li>- 일본 정부 역시 화학 비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슬러지 비료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 지자체들은 민간 비료 업체를 압박하지 않는 선에서, 생산량 증대와 함께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슬러지 비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알려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b>노토반도, '페이즈 프리' 개념 도입으로 평시에도 재난 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이시카와현이 노토반도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페이즈 프리(Phase-Free)'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정비에 착수함. 이는 재난 시와 평상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재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설계하는 접근 방식</li> <li>- 현은 2025년부터 평시와 재난 시 모두 사용 가능한 '오쿠노토관 디지털 라이프라인' 구축을 시작함. 평소에는 공공시설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재난 시에는 피난소 입퇴실 관리 및 드론을 이용한 물자 수송에 활용하는 등 이중 목적의 정보 시스템 구축</li> <li>- 시가정은 평소 스포츠 및 학습 공간으로 사용되다 재난 시에는 1주일간 생활 가능한 대피소로 기능하는 복합 시설을 2곳에 설치할 계획임. 이는 예산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난 대비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li> </ul> <p>○ <b>홋카이도, 관광객 증가에 맞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미래 교통 도입 박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홋카이도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관광객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자율주행 버스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이는 축소되는 기존 대중교통망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이동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li> <li>- 일본항공(JAL)은 2027년 상용 운항을 목표로, 홋카이도에서 저온·강설 환경에 대한 실증 실험을 추진 중임. 신치토세 공항에서 니세코까지 약 160km를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활용하여 기존 교통망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구상</li> <li>- 홋카이도는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지역 교통망 유지의 동력으로 삼으려 함. 관광객과 주민 모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자율주행 버스 정기 운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모색하고 있음.</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 베트남, 트럼프 그룹과 호찌민시에 신규 타워 건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당국이 트럼프 그룹과 호찌민시 내 신규 타워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호찌민 동부 지역 두 곳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li> <li>- 트럼프 그룹 경영진은 5월 22일 베트남 당국과 공식 회동을 가질 계획임. 이와는 별도로, 에릭 트럼프는 흥옌성에서 트럼프 그룹과 현지 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리조트 및 골프장 착공식에도 참석할 예정. 이는 양측의 협력 관계 강화를 의미</li> <li>- 해당 골프 단지는 99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54홀 골프장과 주거용 빌라를 포함하여 건설되며,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베트남의 주요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li> </ul>
미얀마	<p>○ 미얀마, 3,577만 달러 규모 신규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최근 제3차 조정회의를 통해 총 9건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함.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3건과 내국인 투자 6건으로, 총 투자액은 3,577만 8,000달러와 302억 쁘에 달함</li> <li>- 신규 투자를 통해 약 97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승인된 사업 분야는 태양광 자재 생산, 전기화 사업, 즉석식품 제조, 의류 생산, 철강 소재 제조 등 다양하여 미얀마의 산업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li> <li>- 2025년 4월 말 기준, 미얀마의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중국, 태국 순으로 기록됨.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p>○ <b>캄보디아, 라오스 및 필리핀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임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국세청이 라오스, 필리핀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최종 발효 및 이행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함. 이번 협정은 체약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li> <li>- 이 협정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짐. 또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며, 조세 차별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li> <li>- 캄보디아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일본 등 6개국과도 DTA 협상을 진행 중임. 단기적으로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 투자 유치와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됨.</li> </ul>
	<p>○ <b>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 마약 단속 위한 협력 강화 합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와 태국이 제15차 마약 단속 협력 양자회담에서 공동 마약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실행 방안에 공식 합의함.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을 의미함</li> <li>- 합의된 5개 방안에는 마약 검사, 마약 원료 물질 통제, 관련 범죄 정보 분석, 예방 교육,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단속 역량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됨. 양국 대표는 이번 공동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함</li> <li>- 이번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음.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마약 퇴치를 위한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함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2025년 1분기 4.4% 경제성장률 기록, 수출 둔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이는 직전 분기의 4.9%보다 둔화된 수치로, 글로벌 무역 정책의 변화와 원자재 생산 감소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li> <li>- 긍정적인 측면은 민간소비가 5.0%, 민간투자가 9.2% 증가하며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임. 건설 부문이 14.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서비스와 제조업도 각각 5%, 4.1% 성장하며 경제를 뒷받침함</li> <li>-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글로벌 무역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전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5~5.5%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함. 다만, 급격한 대외 경제 변동에 대응할 충분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li> </ul>
	<p>○ 말레이시아, 2025년 1분기 12만 7천 개 신규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노동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여 총 1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고용됨. 이는 말레이시아 노동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 일자리의 97.9%가 채워진 상태</li> <li>-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기·전자 및 석유·화학 제품 분야에 집중됨. 이는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li> <li>- 2025년 1분기 신규 일자리 수는 3만 3천여 개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숙련직과 준숙련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짐. 이에 따라 고등 교육 및 전문 직업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아세안	<p>○ 아세안-중국, 디지털·녹색 경제 포괄하는 FTA 3.0 협상 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상무부가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FTA) 강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함. '3.0 버전'으로 명명된 이번 업그레이드 협정은 역내 경제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2022년 11월에 시작된 이번 협상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결성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 특징임.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양측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됨</li> <li>-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이번 협정은 연내 정식 서명이 예상됨. 이를 통해 양측의 생산 및 공급망 통합이 심화되고, 경제적 유대가 더욱 공고해져 역내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li> </ul>
싱가포르	<p>○ 싱가포르, 로렌스 워그 총리 주도 신규 내각 구성... 세대교체 단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렌스 워그 싱가포르 신임 총리가 총선 이후 첫 내각 개편안을 발표하며 리더십 쇄신을 예고함. 전체 15개 부처 중 7개 부처가 개편 대상에 올랐으며, 신임 의원 두 명을 장관 대행으로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물을 대거 기용하며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li> <li>- 찬춘싱 교육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데스몬드 리 국가개발부 장관이 교육부로 이동하는 등 주요 부처의 연쇄 이동이 이루어짐. 또한 3명의 조정장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과 보좌 역할을 강화</li> <li>- 워그 총리는 이번 개편이 리더십 쇄신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신임 각료들이 경험을 쌓는 상황을 지켜본 후 1~2년 내 추가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열어둠.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이루려는 의도로 분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p>○ 싱가포르, 미국 관세 부과 유예 기간 활용해 수출 확대 총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김용 싱가포르 부총리가 자국 기업들이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제안했던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적인 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li> <li>-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싱가포르에는 현재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되고 있음. 이 덕분에 지난 4월 싱가포르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하며 약 9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당국은 향후 둔화 가능성을 경고</li> <li>- 싱가포르 정부는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향후 미국이 실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2%로 하향 조정하며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음</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